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 럼

온유한 자가 이긴다

거센 불길도 물을 이길 수 없고,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 없다. 온유한 자를 이길 세상은 없다.

불과 파도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이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파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에 반해 물은 형제도 없이 모든 것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거센 불을 잠재운다. 바위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지만, 그 앞에서 사나운 파도가 부서지며 물러난다. 힘이 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힘을 이긴다는 역설이 여기에 있다.

대개는 화를 더 큰 화로 갚고, 목소리를 더 큰 목소리로 누르고, 힘을 더 센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승리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연은 맞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다른 차원에서 승리를 가르친다. 온유함이 힘을 이긴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착각한다. 그러나 어디 물이 약하던가. 물이 바위도 뚫고, 협곡도 만들고, 땅을 깎아낸다. 싸워서가 아니라 조용히 스며들어서. 바위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의 위치를 잃지 않기에 파도를 이기는 것이다. 즉 온유함은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맞서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는 것이다.

우리 삶에는 매일 크고 작은 불길과 파도가 밀려온다. 누군가의 날 선 말, 억울한 오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그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맞불을 놓고 싶어진다. 이에 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말 강한 사람은 그 앞에서 물처럼 흐르고,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킨다.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11:29).

온유함은 ‘길들여진 힘’을 의미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붙들릴 때 우리 성품이 길들여져 온유할 수 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땅을 기업으로,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게 하신다(시37:11).

나그네의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파사로운 태양이었음을 알고, 온유한 자가 되자.

신앙에 결코 타협이란 없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제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출20:3).

곧 오직 하나님만 섬기란 명령입니다. 이는 사정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지엄한 절대주권자의 명령,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기에 동의하든, 배타하든 그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오롯이 인간 스스로 감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 말했습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

즉, 하나님은 그 어느 것과도 견줄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목사님은 명절 때가 되면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는 설교로 우리의 영적 정신무장을 주문하십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명절 때만 국한된 문제이겠습니까? 이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수시로 넘실대는 파도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 사업관계, 정치, 외교 등을 망라하는 수많은 문제에는 반드시 주고받는 타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어디 이들뿐입니까? 초대교회 시절,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도 구한말 김대건 신부의 순교가 있었고, 제사를 거부하다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일제 치하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손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제사를 거부하다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래도 타협하지 않았더니 우리 집안에 동생들, 아들, 조카까지 주의 종이 되었고, 저를 내쫓았던 어머니까지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14년 추석 명절에 진행된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

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 10:20~22).

또 마태는 뭐라 말했나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6:24).

누가도 말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하는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타협 없는 신앙의 길을 가느라 무수한 죽음,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모든 신앙인의 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자굴로, 풀무불로 위협해도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직장에서 돼지 대가리 앞에 절하라는 상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명절 제사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타협할 수 있지만, 신앙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면 하라는 겁니다(고전10:22).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 믿음의 선전들처럼, 저처럼 타협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은택 목사

청주 무심천 전도집회

날짜: 2026년 10월 9일(한글날), 오후 2시

장소: 무심천 체육공원(롤러스케이팅장)

문의: 02. 533. 9191



추석입니다. 오랜만에 바쁜 일손을 잠시 멈추고 고향을 찾아가 가족을 만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오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들 아시죠?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론 제사 지내는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지만, 성경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 곧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살았을 때야 할아버지요 할머니지만, 믿지 않고 죽었으면 다 귀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은 전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귀신을 우상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왜 제사를 안 지내냐?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 뭐가 나쁘냐?”며,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 취급하는데, 그네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부모나 조상을 흠대하는 비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출20:12)’고 실질적인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효는 한시적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을 거하게 차리는 것은 자기만족이지, 효도 아니고, 미풍양속도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자주 속내도 들어드리고, 자주 만난 것도 사드리고 살피는 것이 효입니다. “그럼 제사만 안 지내면 되지요?”라고 물으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부님들 중에 안 믿는 집안 며느리는 명절이 참 곤란할 겁니다. 제사상에 절하는 건 어찌 피할 수 있는데, 제사 음식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도둑놈들이 남의 집을 털 때 망을 보는 자나, 담을 넘는 자나, 장물을 내다 파는 자나 다 같은 한패거든요. 다 처벌받습니다.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 거나 제사 지내라

고 돈을 내는 거나 다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 18~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쥘고 아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향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나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여자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 부침개를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데,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격노하셨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절인데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말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돈을 구별하여 드리고, 음식도 구분해서 만들면 됩니다. 어렵겠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명절을 가족을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세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시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명절에 모였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목청을 높이는 것보다 평소애 믿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만 만나서 ‘예수 믿어라’ 하는 것보다 평소애 늘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 때만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형제에게 안부를 물을 게 아니라 평소애 안부도 묻고, 선

한 마음으로 챙기고 살피는 것이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행실로 인하여 가족이 예수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실을 보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 나도 믿어볼까?’ 하도록 말입니다. 마음이 열렸을 때 복된 소식을 전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명절에 제사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추석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은 제사 걱정 안 해서 좋고, 이를 보신 하나님은 기뻐하사 복을 주실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까? 사실 배부신분은 따로 있는데, 죽은 조상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 허탈하실 것입니다. 누가 햇빛을 주셨습니까? 누가 비를 주셨습니까? 누가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까? 조상이 도와서 풍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의 은덕으로 풍요로운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키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처음 익은 열매를 그분께 드리고, 그분께 감사해야 옳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잠3:9).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제사상이 감사의 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술잔을 올리던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통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잠3:10). 우리 삶에, 우리 가정애, 우리나라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될 것

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신앙만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신앙만은 절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중 첫째명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법, 감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야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전들이 목숨을 버리면 서까지 신앙을 지킨 것 아닙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 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신앙의 타협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시다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오히려 다니엘을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케 하셨습니다(단6:28).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도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절대 신앙에 타협은 없다는 대쪽 같은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건지셨으며, 그들을 더욱 높이셨습니다(단3:30).

모든 것은 타협해도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에게 휩쓸릴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조를 가지고 신앙을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دور과 언행으로 가족을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가, 더 나아가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추석이 되게 합시다.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그런 나라가 되는 것, 먼저 믿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기도는 영적 스타트 버튼이다!

아버님은 유교 사상에 젖어 거의 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셨다. 더구나 교회 장로였던 지인의 처신은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더욱 나쁜 선입견을 갖게 했다. 무려 4~50년 전에 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 가 놓고선 ‘나 몰라라’ 입을 딱 썼은 것이다. 제사도 부정하고, 장로란 사람의 처신도 그러했던 터라 아버님 보기에 기독교는 사람간의 유대를 깨뜨리며 자신의 뿌리도 부정하는 한국 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되어 있었다.

어찌나 완고하셨던지 외삼촌 두 분이 목사 길을 걷고 있었음에도 ‘교회, 십자가, 예수’라는 말은 아버님 안전(顔前)에선 언급조차 못하셨다. 그 시퍼런 서슬에 놀려 어머니 또한 교회에 발도 못 붙이셨다. 그런 분위기에서 필자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가겠다고 한 것은 아버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다.

평생 ‘나의 때 좀 벗겨다오’ 하신 아버님. 어릴 적엔 그저 ‘목욕탕에 가자’ 하시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 머리가 조금씩 여물어가다 보니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아버님의 한을 풀어 달라, 아버님의 면을 세워 달라’ 하시는 뜻이었음을...

필자를 붙잡고 질책도 하시고, 회유도 하시고, 눈물로 호소도 하셨다. 하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는 없기에 그 뜻을 꺾지 않았다. 그 결과 빈 몸으로 집에서 쫓겨나고야 말았다. 그러나 핍박하셨다고, 집에서 쫓아내셨다

고 어찌 부모님께 섭섭하다 원망할 수 있으랴. 오히려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놓인 위태로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기도할 따름이었다.

‘주님 제게 맡기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게 16년을 기도했다. 그랬더니 필자도 모르는 사이에 그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버님에겐 평소에 ‘누님’이라 부르며 가까이하시던 보살이 한 분 있었는데, 이분 전직이 아 글썽 전도사라지 않은가! 막내아들 때문에 하도 마음이 답답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오히려 대뜸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넌 네 아들 따라가야 살아!’

어찌나 쏘아붙이듯 강경하게 이야기하던지,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미련 두기를 포기하게 되셨다고 훗날 고백하시는 거다. 또 어느 날부터인가 주변에서 자주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당신을 교회로 끌고 가는 이들이 생기더라. 그간 자신에게 들인 공을 무시할 수 없어 한번 두 번 따라나서다 보니, 결국엔 목사 아들 몰래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아놓고 계셨지 않았겠나! 할렐루야!

그렇다. 기도는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번 추석이 모쪼록 성도님들 가족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신현명 목사

:: To Be Succeeded ::

기도와 노력

큰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 첫 시험을 보았다. 기대 이하의 결과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총회장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당신의 목회 여정의 가장 친한 두 친구, 기도와 노력을 아이의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까운 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고, 날마다 일정 시간을 학습하며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미디어 콘텐츠가 더 즐거울 요즘 아이에게 처음부터 쉬웠을 리 없다. 따끔하게 혼이 나가며 하루하루 해나가는 동시에 아이가 묵 놓아 기도하는 날도 늘어갔다. 알고 보니 공부에 이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했단다.

어느 날부터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보였다. 공부 안으로 쑥 들어가 스스로 끌어가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 분명 성령님의 도우심이였다. 어느덧 두 달의 시간이 흐르고 두 번째 시험을 본 결과, 대부분 과목의 점수가 크게 상승하며 좋은 결과를 받았고, 각 과목 선생님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은 아이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더 잘하고 싶다는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다. 결과보다도 더 기쁨이 되었던 것은, 아이가 하나님 말씀과 목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다.

목사님이 기도와 노력을 친구 삼아 40여년 목회 여정을 걸어오신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을 것이다. 마치 오리가 유유히 강물을 떠다니는 것 같으나 물속으로는 두 발로 쉬지 않고 헤엄치는 것처럼, 간절한 눈물과 통곡의 기도, 피나는 자기 채찍질이 동반되었을 것이다. 70이 훌쩍 넘는연세에도 변치 않고 매일의 골방 기도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좃아 따라가며 수많은 양 떼를 돌보시는 것은, 천국 문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변개치 않고 넉넉히 승리하여 천국의 왕권과 면류관, 상을 받아 누리고자 하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뜻대가 있기 때문이다.

기도와 노력, 이것은 비단 목사님만의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목사님은 우리를 독려하신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다. 작은 나의 결단을 진실된 기도와 결부시켜 행동으로 옮겨 지속한다면 냇물이 강물, 강물이 바다, 더 나아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대양을 이루듯,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에는 심히 창대한 영·육·간의 축복이 우리에게 도 임할 줄로 믿는다.

이국진 사모

에베레스트의 이정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8,848m)은 거센 바람과 눈보라 때문에 일반적인 이정표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등반가들은 안타깝게도 과거 그곳에서 숨진 이들의 차림새를 지표 삼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곤 합니다. 그런데 비극을 맞이한 등반가 대부분은 정상을 밟은 후 하산하는 길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목표를 향해 긴장하지만, 정상에 섰다는 기쁨에 잠시 방심하는 순간 작은 실수나 환경 변화로 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유치부 여름성경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친 뒤의 일입니다. 캠프 당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고백했던 한 어린이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기쁨이 사라졌다며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전화하여 기도하였고, 이 시대 목사님께도 말씀드리 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곧 평

안을 되찾아 주일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큰 수련회나 집회처럼 명확한 영적 목표를 두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대한 영적 잔치가 끝난 뒤 방심이 찾아올 때 시험에 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잔치 뒤에 도둑 든다”는 말처럼, 악한 영은 영적 풍성함 뒤의 나태함을 틈타 마음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은혜를 온전히 지켜내는 파수꾼의 사명이 더욱 중요합니다.

에베레스트의 참된 완성은 정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큰 은혜를 누린 후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며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중심 성도가 됩시다!

이삭 전도사



:: 생명의 말씀 ::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좁은 외나무다리 위에서 두 마리의 염소가 마주쳤다. 서로 먼저 지나가겠다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두 염소는 서로 밀치고 버티다가 둘 다 물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의 다툼도 그렇다. “내가 옳다!”,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느냐!”며 끝까지 버티면 결국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양보하면 싸움은 멈추고 화평이 시작된다.

한 성도가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다. 서로는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불편함과 서운함이 쌓여갔다. 그 성도는 늘 생각했다. “내가 먼저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지?” 기도를 해도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시기 위해 먼저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나는 왜 작은 상처 때문

에 화목하기를 거절하고 있는가?’ 그는 예배가 끝난 후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내려놓자.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게.” 잠시 전화기 너머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상대방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나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 두 사람은 그날 마음을 풀었다. 나중에 그 성도는 이렇게 간증했다. “내가 먼저 사과했지만 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가장 먼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다. 화평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화평은 누군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 얼어붙었던 관계에도 봄이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후5:18).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때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심는 사람이다.

임택합 목사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자세

3년 전쯤 체력이 많이 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면서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무엇이랄도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수영을 시작했다. 그렇게 월·수·금 수영 강습을 다니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간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사실 쉬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든다. ‘오늘은 그냥 쉬까?’ 하며 수영장에 가기 싫은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그 귀찮은 마음을 이겨내고 운동을 다녀오면 몸이 개운해지고 자세도 좋아진다. 평소 아팠던 부분도 조금씩 나아지고, 신기하게도 정신 상태까지 달라지는 것을 느낀다. 몸에 활력이 생기니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시작하고 활동하게 된다. 결국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단순히 체력 하나가 좋아지는 것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처음 수영 강습을 받을 때는 뒤에서 다른 회원들을 겨우 쫓아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수영장 왕복 길이가 50m인데, 왕복 한 번조차 쉽지 않았다. 조금만 지나도 숨이 차서 힘들었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동작들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웠다. 그런데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쉬지 않고 왕복으로 두 번이나 갈 수 있게 되었고, 같이 강습을 듣는 회원분이 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체력이 좋아 보인다며, “20대 체력인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다. 물론 실제로 20대 체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나 스스로도 예전과 비교하면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낀다.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며, ‘재산 목록 1호’인 건강을 잘 챙기려고 한다. 그리고 기

도와 성경통독도 꾸준히 하면서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성장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준비하고 싶다.

목사님께서 “남의 건강, 남의 학력, 남의 미모, 남의 기업, 남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내 건강, 내 가정, 내 기업, 내 교회, 내 나라를 살피며 힘을 기르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그 말씀처럼 남의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잘 돌아보고 힘을 길러야겠다. 수영을 통해 몸이 건강해진 것처럼, 앞으로도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함께 건강하게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

정효경 집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14:27)

거목이 태풍과 추위를 이기나
나무 속 딱정벌레에 죽는다
근심 걱정이 나를 죽인다
-봉우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하나님을 자랑하라

몇 해 전 교회신문(973호/2018.10.21)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네가 의롭다면 가장 큰 범부법인이 너를 상대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변호사 도움 없이 대기업을 상대로 민사 재판에 담대히 나가 승소했던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 승소 결과가 나오자, 기도해주셨던 총회장 목사님께 바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목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이후 설교 중 여러 번 간증하셨습니다.

기도원 집회 기간 중에 목사님을 뵈러 사택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은 공개 상담을 하고 계셨고, 많은 성도님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편에 앉아 목사님의 지혜의 말씀을 귀담아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타 교단에서 오신 한 권사님이 자신의 재판 문제를 목사님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매우 불안한 상태로 황설수설하는 바람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권사님에게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간증을 하시고, 곧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에게 권사님을 맡기셨습니다. 따로 권사님과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궁지에 몰린 억울한 상황과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뒤늦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 겪는 일에 매우 불안

해하며 수면제와 신경안정제까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보였지만, 권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거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권사님에게 교회 신문에 실렸던 재판에 대한 간증문을 보내드리고, 글로 다 적지 못했던 재판 중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자세히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에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에 관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쁜 것이니(롬10:17), 이초석 목사님의 믿음의 설교를 꼭 반복해서 들으세요. 수많은 걱정을 기도로 바꾸어 기도 수첩에 적어서 매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믿으세요(막11:24).”

얼마 후, 권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메시지로 남기며 기도를 부탁할 정도로 믿음이 점차 자라기 시작했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꿈을 통해 방향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가족과 여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의 간증문을 전했는데, 또 다른 재판 중에 있던 타 교단의 성도님이 간증문을 읽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믿음은 전염되는 것이기

에 간증이 침체되어 있던 믿음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강력한 불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간증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얻은 것은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추억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현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간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신앙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믿음의 씨를 뿌려 자라게 하였고, 위기의 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간증을 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를 믿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간증하는 저의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신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안에만 숨겨두고 계시진 않나요? ‘내 이야기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라고 주저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거창한 영웅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진실된 간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간증을 통해 또 한 영혼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명관

최선을 다하자

고3인 큰아이의 대입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성적을 토대로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살펴보았지만, 목표했던 곳에 원서를 넣기에는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아이는 아쉬운 목소리로, “아빠, 고1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때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훌쩍 지나갈 줄은 몰랐네요.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원하는 대학에 지원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모습에 안쓰러워, “끝까지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라며 아이를 다독이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노력이 대입이라는 문턱에서 평가받듯,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고 평가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조금 더 공부할 걸.’ 하며 뼈저리게 후회해도 지나간 학창 시절이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천국에 상급을 쌓을 기회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 쉬는 동안뿐입니다.

정작 저 자신부터도 아직 살아갈 날이 한참 남았다고 막연히 생각하며 안일하게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회사 일이 바빠서’,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집이 너무 멀어서’, ‘삶에 여유가 없어서’ 등등. 주님 앞에 내세웠던 수많은 핑계와 이유들이 부끄러움이 되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산 집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시 청주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다. 점점 부재가 사고 원인이다.”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훗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난날을 후회하며 아쉬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5:10).

송명국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